

‘수업시간표 편성지침’ 한산한 금요일의 캠퍼스

금요일 개설 강의 전체의 6.2% 그쳐 교수도 학생도 금요일 수업 기피

금요일 캠퍼스가 한산하다. 금요일에 열리는 강의가 거의 없어 학생들이 캠퍼스를 올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학사과에서 입수한 '대학별 수강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 2학기 전공 강의 중 금요일에 진행되는 전공 강의는 91개밖에 없었다. 현재 제주대의 전공 수업은 '진로와 취업상담' 교과목을 제외하고 총 1460개가 개설돼 있다. 금요일에 진행되는 강의는 전체의 6.2%뿐이다. 특히 인문대학은 금요일에 개설돼 있는 전공 강의가 하나도 없었다.

금요일 강의는 2015년 2학기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5년 2학기부터 금요일 1~4교시를 보강을 위해 비워두고 있다. 또한 금요일 오후에는 학군단 강의로 인해 3, 4학년 강의가 거의 열리지 않는다.

고현정(학사과) 실무관은 “휴·보강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2학기부터 자체적으로 '제주대학교 수업시간표 편성지침'을 통해 금요일 1~4교시 강의를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교수 대부분은 이를 반기고 있다. 학생들은 월~목요일에 강의를 우선 신청한다. 이 경우 금요일에 학교를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교수들도 세미나를 강의가 없는 금요일에 열 수 있어 호의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같은 시간, 다른 요일” 오후 6시 금요일 정문 앞 임시버스정류장(왼쪽)과 같은 시간 월요일 정문 앞 임시버스정류장(오른쪽)의 모습. 좌우가 확연히 대비된다.

전 8시 40분에 정문에서 출발하는 교내버스가 만석이지만 금요일은 남은 자리가 많았다. 백두관 식당, 아라홀 등에서 점심을 먹는 학생도 거의 없었다. 또한 오후 6시경에 정문 앞 시내버스정류장 앞에 학생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생활협동조합의 한 직원은 “오전 금요일 캠퍼스가 10여 년 전의 토요일 캠퍼스 분위기 같다”며 “다른 평일에 비하면 금요일에 학생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금요일에 강의가

없어 강의 시간표를 짜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조기졸업을 계획하거나 편입으로 제주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많은 시수의 학점을 듣기에 4일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3학년인 A씨는 “2학년 2학기 때 개인적인 일로 인해 강의를 많이 듣지 못해 이번 학기에는 많은 시수의 강의를 들으려고 했다”며 “그러나 금요일에 강의가 개설돼 있지 않아 시간표를 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우리대학의 내진설계 상황은?

내진설계 된 건물은 28% 지속적인 내진 보강 예정

경주에서 크고 작은 여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제주대학교 건물 중 일부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54초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본진이 일어났다. 이에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우선적으로 대학 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강예지(독일학과 2)씨는 “지진을 감지하지 못했지만 뉴스와 인터넷을 보고 심각함을 느꼈다”며 “제주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학교 건물에 지진 설계가 잘 돼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출처의 '교육기관 건물 내진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법인)대학 건물 3153동 중 내진적용 대상건물은 2239동이지만 내진적용 건물 비율은 669개동(29.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대는 적용 대상 건물 총 93개 동 가운데 내진적용이 된 건물은 26개 동으로, 내진 적용률이 28%에 그쳤다. 이는 전국 41개 국립대 평균 적용률(29.9%)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대학교 건물이 다중이용시설 인데다 24시간 가동되는 연구시설이 많은 만큼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제주대의 내진적용률이 낮은 이유는 몇몇의 건물이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도

입되기 전에 건설됐고, 2005년 내진설계 기준이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강화되기 전 완공된 건물 중 대부분은 당시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도 안전하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내진설계 건물도 안심할 수 없다”며 “학교건물의 내진 설계는 지역마다, 건물의 높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규모 5 미만의 지진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규모 5.8 강진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결국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학교 건물들이 아니든 원점으로 돌아가 건물기초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재정 여건상 당장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설과 관계자는 “1988년부터 내진설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이후 지어진 건물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만 이전 건물은 사실상 내진적용이 안 돼 있다”며 “향후 대학 건물 리모델링 사업시 지속적인 내진보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국제교류회관 '아라컨벤션홀'로

2016년 9월 6일자로 국제교류회관이 아라컨벤션홀로 명칭이 변경됐다. 경영사업단 관계자는 “활용사례를 봤을 때 이름 변경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교수회장 선거 입후보자 없어 연기

27일부터 후보자 재등록 10월 19일 투표 통해 결정

제8대 교수회장을 뽑는 교수회장 선거가 10월 12일에서 19일로 연기됐다.

교수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10월 12일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6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한 교수는 전무했고 교수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일정을 변경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입후보자 등록을 하

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익명의 교수는 “이번 교수회장 선거에 나가게 되면 내년 총장선거를 비롯해 할 일이 많아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책임이 많은 교수회장을 하려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수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변경된 일정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선거는 1차투표와 2차투표를 통해서 결정되게 된다. 선거장소는 사회과학대학 중강당, 의학전문대학원 회의실, 사라캠퍼스 회의실

이다.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선거일 당일 기준 정교수 이상이다.

입후보자 등록은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가능하다. 단 주말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입후보 등록은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된다.

등록시 제출서류는 교수회장 입후보등록신청서 1부,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1부, 이력서 1부, 입후보소견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이다. 선거운동 방법은 연구실 방문, 전자통신 선거(전화, 문자, 메일, 전자게시판) 등이다. 하지만 유인물의 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754-2088)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해건 기자

해군학군사관후보생 모집

학생군사교육단이 9월 30일까지 1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주역이 될 2017학년도 해군학군사관후보생을 모집한다.

9월 30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은 후 10월 5일에 1차 필기시험을 치른다. 이후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시험인 신체검사와 체력평가, 면접 등을 진행한다. 최종 선발자 발표는 12월 14일이다. 선발될 경우 국방부 장려금 등의 여러 장학금 혜택과 입관 이후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받는다. 지원서 접수 및 자세한 문의는 제주대학군단(064-755-6188)로 할 수 있다.

김해건 기자

청년 취업박람회 10월 4일 열린다

2016년 청년 취업박람회 '잡아라 페스티벌(JOB ARA FESTIVAL)'이 오는 10월 4일 오후 1시부터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취업전략본부, 제주대학교 RINC사업단,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등이 주관한다. 개회식은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취업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채용박람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목표다. 또한 기업탐방과 해당 기업의 취업에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특강을 통해 재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제주영업지부, ㈜블랙야크, ㈜제주항공,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

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총52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45개의 기업이 채용관을 운영한다. 채용관에서는 취업전략본부와 각 단과대학별 취업지원관에게 미리 접수한 학생에 한해 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채용정보 및 취업건설팅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취업특강, 우수기업탐방, 모의면접 경진대회 등을 운영하며 타로, 네일아트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취업박람회 참가자 선착순 400명에게는 문화상품권(1만원)을 지급하며 다양한 경품행사로 준비돼 있다.

김동현 기자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2017년 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신입생모집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2017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제주대가 당신의 꿈을 지원합니다.

- 석사과정 월 70만원, 박사과정 월 100만원 학비지원(Full Time)**
※ 최근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풍력 O&M 기술 고급트랙**”
(사업기간 : 2016.7월 ~ 2021.6월) 과제를 통해 지원 (국비지원)
- 우수 대학원생에게 해외 우수대학 학점교류 비용 지원
(유럽 : 알보그대학(덴마크), 펠트르공대(네덜란드), 러프버러대학(영국) / 일본 : 아시카가 공대 등)
- 우수 대학원생에게 해외·국내 인턴십 비용 지원
(국내 : 한국남부발전, 한국전선,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국외 : 네덜란드 ECN, 독일 Lahmeyer, 영국 Romax 등)
- 국·내외 학술대회참가 및 논문발표 지원

당신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 원 서 접수 : **2016. 10. 24.(월) 10:00 ~ 10. 27.(목) 17:00**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 선 발 방 법 : 면접고사로 합격자 선발
(면접은 기본적 소양, 학구적 태도, 입학 후 학업계획, 영어구술 능력 등을 평가함)
- 면 접 시 험 : 2016.11. 08(화) 10:00 ~
- 모 집 인 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특별전형)
- 모 집 학 과 : -석사과정: **풍력공학부 (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 시스템전공, 풍력해상·토목공학전공) 3개 전공**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 지원 자격 : 전공제한 없음(이공계열·인문사회계열 등)
- 졸업 후 진로: 한국남부발전(주), 제주에너지공사,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주), 한국전선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 문 의 처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
대학원 풍력공학부 행정실 **064)754-4400**
대학원 풍력공학부 홈페이지 **https://gwe.jejunu.ac.kr**
공지사항의 “2016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및 “예비신입생을 위한 풍력공학부 소개” 참조.

사라캠 학생 78% 캠퍼스 이전 반대

캠퍼스 분리로 행정·재정적 한계 느껴 이전 추진
대화 통해 합의점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사라캠캠퍼스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캠퍼스 이전을 둘러싸고 교직원과 사라캠캠퍼스 재학생 간의 입장 차가 매우 커 학교 측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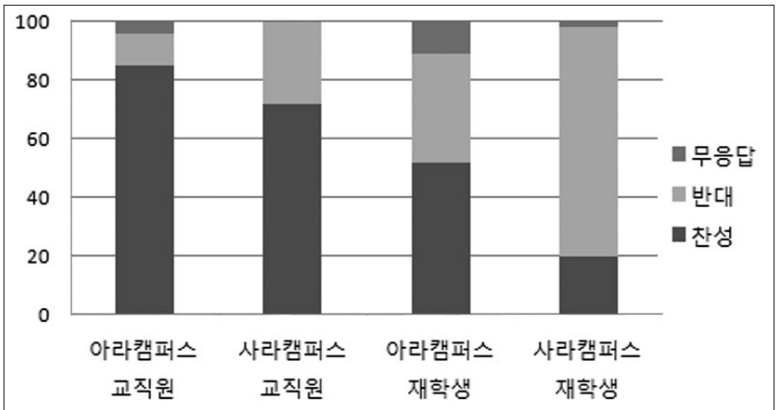
2015년 말 학교 측은 교육대학 캠퍼스의 공간적 분리로 교육대학 학생들의 아라캠캠퍼스 시설활용에 한계를 느끼고, 캠퍼스 분리운영에 따른 행정, 재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 및 인적교류 부분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간의 통합교육과정 운영의 한계를 느꼈으며, 교육대학생들이 아라캠캠퍼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라캠캠퍼스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내용은 캠퍼스 통합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에는 학내 구성원들이 캠퍼스 통합에 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설문내용으로는 교육대학 이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조사, 교육대학 이전 타당성 진단, 신축건물 규모 및 공간배치 등 5개 항목이었다.

설문은 2016년 5월 10일부터 4일간 아라 및 사라캠캠퍼스 전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사라캠캠퍼스 재학생(228/473)은 48.2%의 응답률을 기록했고, 교직원(32/58)로 55.2%, 아라캠캠퍼스 재학생(921/9744) 9.5%, 교직원(201/1005)명이 응답했다.

결과는 상반됐다. 사라캠캠퍼스 재학생은 78%가 이전반대로 응답했고, 아라캠캠퍼스 재학생은 52% 찬성으로



찬성이 많은 교직원에 비해 두캠퍼스의 학생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답했다. 두 캠퍼스의 교직원은 모두 80프로 정도로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사라캠캠퍼스 학생들은 시설·공간의 미확보, 실습의 어려움, 공용공간 활용상의 불편 발생 등의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익명의 교육대학 학생은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왜 캠퍼스를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며 “캠퍼스를 옮겼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온전히 보존되지 않으니 당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정훈(정치외교학과 2)씨는 “두 개의 캠퍼스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며 “하지만 결국 이전을 하는 쪽은 사라캠캠퍼스 학생들이니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아직까지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경상대학, 제자·후배사랑 책 나눔 행사 개최



경상대학(학장 강영순 경영학과 교수)과 경상대학 학생회(회장 김민수 관광경영학과 4)가 9월 6일 경상대학 1호관 주차장에서 ‘후배사랑·제자사랑 책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학생들의 교재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나눔과 자원절약을 실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7기 원우회, 세경대학과정 8기 원우회에서 각 50만원씩 발전기금을 출연해 경상대학 학생들의 전공서적을 구입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

행사에서 경상대학 교수들이 기증한 전공서적 및 교양서적 100여권,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구입한 50권의 전공서적, 학생들이 기증한 80여권 등 230여권의 책이 선보였으며 도서기증 및 도서교환권 배부는 학생회에서 맡아 진행했다.

김해건 기자

총여학생회 축제 ‘제대의 마블’ 28일 개최

‘군세여라’ 총여학생회(회장 장여진 회계학과 4)의 축제(주제: 제대의 마블)가 9월 28일 오전 11시부터 학생회관 한라터 일대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각 나라의 부스별로 한국

부스, 마카오 부스에서는 게임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다양한 나라의 부스를 통해 플라마켓, 드라이플라워꽃다발·파우치·태슬리귀걸이 만들기 부스 등이 진행된다. 오후 7시부터는 학생회관 4층 옥상에서 영화관람이 운영된다.

김해건 기자

WISET센터 공학계열 학생 대상 특강 열어

WISET(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제주지역센터(센터장 김소미)가 9월 8일 제주대 교양강의실에서 이슬희 S&people 대표를 초청, 공학계열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Gendership & Leadership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주제는 ‘여성이 미래다!(부제: 여러분의 사다리는 제대로 놓여 있는가?)’이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Gendership과 Leadership’ 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현실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에 대해 조언을 해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참여 학생들은 “이론보다 사례 중심의 강연이라 이해하기 쉬웠고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의견을 보였다.

WISET제주지역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제주대학교 등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질풍노도의 ‘대2병’… 휴학·전과로 이어져

진로·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 많아
잠시나마 취업부담감을 벗어나기 위한 결정

“휴학할 생각이예요”, “취업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해요”, “적성 못 맞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생들에게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질문을 하면 으레 막막하다거나 전공이 자신과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허다하다. 대체로 복잡한 취업문제로부터 휴학을 위해 또는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위해서 휴학을 하거나 소속된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음을 깨닫고 전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방향하는 시기 혹은 모험을 일컬어 ‘대2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전공이 자신과 맞지 않거나, 취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지 못한다면 이 병에 해당한다. 극심한 취업난 속 학생들의 괴로운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입시경쟁에서 빠져나와 대학생임을 만끽하며 1년을 보내고 나면 어느덧 대학교 2학년이 된다. 그러나 생활의 낭만도 잠시 학생들은 다시 취업경쟁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

휴학을 고민했다는 위지현(원예환경전공 2)씨는 대2병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대2병은 제가 입문제로부터 휴학을 위해 또는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위해서 휴학을 하거나 소속된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음을 깨닫고 전과를 선택하는 시기다. 지금 대학교 2학년이니 나 또한 대2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대학생활 중 휴학을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다. “학과가 적성에 잘 맞는지 고민이 많던 때였다. 더군다나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 어느 하나 잘 해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성적은 떨어지고 학과에 흥미를 잃게 돼 휴학 생각을 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는 어느 학생들이 그렇듯

수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는 이유는 자신의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상 취업 자리는 한정적이기도 하고 요즘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있어 결국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을 나와 직장을 얻게 되도 그 수입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는 수입과 비슷한 것 같아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생각하게 된다”고 전공과 직업 선택의 괴리로 인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와 같이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2병과 같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5월 청년 실업률이 9.7%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날로 높아가는 취업스트레스로 오늘날 대2병을 앓는 청년들은 어두운 미래에 좌절하고 만다.

김정희 기자

LINC사업단 캠프개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단장 이상백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이 9월 22~24일 루체빌리조트에서 제주대와 호남지역 7개 대학의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함께하는 제주·호남지역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제주대 Start Up Weekend 캠프’를 개최했다.

창업동아리 학생 38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학생 개개인이 보유한 창업아이템을 발표하고 팀을 구성하는 ‘아이디어 피칭을 통한 창업기업 설립’을 시작으로 ‘창업전문가와 함께 하는 맞춤형 멘토링’이 중점적으로 진행돼 창업단계별 전문가 코멘트를 통한 창업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 캠프에선 우수 창업아이템을 발표한 3개팀이 제주대 총장상, 제주테크노파크원장상, 한국창업교육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제주대 LINC사업단은 “청년사업가들에게 네트워킹은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라며 “이번 캠프가 제주·호남지역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네트워킹의 발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지영 기자

문화콘텐츠사업단, 특성화사업 설명회 열어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김동진)은 9월 13일 인문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특성화사업단 참여학과(사학과·국어국문학과) 1~2학년 재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문화콘텐츠 특성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지방대학특성화사업과 한국문화콘텐츠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 이해와 더불어 문화원형·스토리텔링 심화과정,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문화콘텐츠 현장답사 등 사업단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동진 단장은 “우리 사업단이 창의적 인문학 교육을 통한 미래형 한국문화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학생들이 창의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문화콘텐츠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능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관 김치완	편집국장 김해건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u.ac.kr		

제36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62주년을 맞이하여 제36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nu.ac.kr로 제출
- 접수마감 : 2016년 11월 21일(월) 18:00까지
-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5만원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 (☎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 발표 : 제주대신문 백록학술상특집호 (2016년 11월 30일 발행)

제주대신문

사람들

현명택(기계공학과) 교수
교육부장관상 수상

현명택(기계공학과) 교수가 9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현 교수는 지난 20여 년 간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예로기술 해소, 산업연공동기술 개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산학연유공자 포상 부문 교육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특히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과제를 17회 수행했고 최근 3년간 특히 11건, 참여연구원 취업 5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8개사를 설립하는 등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도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역임하면서 연간 15개 내외의 창업기업을 지원 중이다. 현 교수는 그간 대학내에서도 산업체와 대학이 협력해 기술개발, 인재양성, 학생취·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장 등을 역임해왔다.

김해건 기자

석사과정 김맹범·고민영씨, 우수 논문발표상

교육대학원 초등과학교육전공 석사과정 김맹범·고민영씨(지도교수 홍승호)가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주최로 최근 춘천교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 제목은 '내진 설계를 주제로 한 STEAM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과학 흥미도에 미치는 효과'로 창의적인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등과학 수업의 전략과 효과를 제시했다.

이 논문은 초등과학의 '화산과 지진' 단원에서 지진에 대한 내용 중 내진 설계에 중점을 뒀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게 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주제를 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흥미를 제공하고 지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맹범씨는 현재 삼성초등학교 교사, 고민영씨는 동광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김정희 기자

고창훈(행정학과)교수, 출판기념회 열어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가 22일 오후 4시30분 제주 4·3 평화공원내 제주 4·3 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고창훈(행정학과) 교수 정년퇴임 기념 제주 4·3 대비극(Jeju 4.3 Grand Tragedy) 영문책자 국제공동논문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자는 제주 4·3의 미국정부 청원을 위한 것으로 책자에는 고 교수의 논문 4편 외 22명의 국내외 저자의 15편의 국제공동 논문이 실려 있다.

김해건 기자

» 학내교통 이대로 관찮은가 <1> -무분별한 차량출입

출입증 발급받지 않아 주차문제 심각해

주차공간은 많으나 특정구역에만 몰려
총무과 “통제시스템기 통해 제재 예정”

지리적으로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한 아라캠퍼스에 오기 위해서는 버스·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교내·외 교통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현재 아라캠퍼스는 과속·불법주차·무단주차 등 다양한 교통문제로 인해 학내구성원들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제주대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

◇많은 차량들 그리고 주차문제
대학에 들어오는 차량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2016년 9월, 현재 대학에서 발급한 출입증은 △교직원 629개 △학부생 428개 △대학원생 467개 △기타 60여개 등이다. 학부생중 1, 2학년 학생들은 차량을 가져와도 교내에 주차를 할 수 없으며 3, 4학년 학생들은 교통출입증을 배부 받아야만 교내에 주차가 가능하다. 출입증 기한은 1년이며 처음 발급받을시 수수료

가 재학생은 3만원, 교직원은 월 5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이 체감하듯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들이 교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몇몇 학내구성원들은 “학교에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 차량의 증가는 곧바로 주차 문제와 연결된다. 현재 단과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시설 건물 앞에는 차량들이 빼곡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통행이 많은 곳에도 주차돼 있다. 하지만 차량이 많다보니 건물 앞뒤의 주차공간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대의 주차공간규모는 약 3000대가 수용가능할 만큼 넓은 공간이 있지만 구성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인 단과대학 등 일정건물 주변에만 주정차된 차량이 많을 뿐 친환경농업센터, 제2도서관 주변, 아라컨벤션을 주변 등 학교의 외곽부분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차량, 해결책은 있나?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출입증 미부착 차량 등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위반차량은 주차파지를 붙이는 등의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차량운행에 대한 협조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경원(행정학과) 교수는 본지(953호-자동차 없는 캠퍼스를 꿈꾼다)에서 주차관리의 기초가 되는 캠퍼스 출입 및 주차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 이용자에 차등적 비용을 부과해 운전자의 메리트를 감소시키고, 학내 가

장 혼잡한 지역의 차량통제 규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가 지속되자 학교 측은 통제시스템기라는 카드를 꺼냈다. 아직 논의돼야할 사항이 있지만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총무과 김태한 실무관은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내년부터 차량 통제시스템기를 통해 조절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제시스템기가 설치되면 기본 30분은 면제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10분당 요금이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의 부담가중을 통한 제재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해건 기자



당 비어있는 아라컨벤션 뒤 주차장의 모습.



22일 아라뮤즈홀에서 박웅(음악학부)교수가 음악학부 3학년에 재학중인 강은지씨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다. 김해건 기자

생명화학공학전공, 전국 상위권 평가

생명화학공학전공(주임교수 김민찬)이 전국 상위권으로 평가됐다. 또 경영학과(학과장 강석규)와 중어중문학과(학과장 조홍선), 컴퓨터공학전공(주임교수 곽호영)은 중상위권으로 분류됐다. 제주대는 중앙일보 대학평가결과 생명화학공학전공이 10% 이상 25% 미만의 상위권으로 판정을 받았다. 생명화학공학전공은 12개 평가지표중 전임교원(이하 전임) 1인당 외

부지원연구비 1위, 전임 1인당 자체연구비 1위, 전임 1인당 국내학술지 논문 2위, 재학생 중도 탈락률 2위, 전임 1인당 국제학술지논문 3위 등을 기록하면서 평가대상 44개 대학중 전국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경영학과는 평가대상 69개 대학중 전임 1인당 국내학술지 논문 1위, 중어중문학과는 52개 대학중 전임 1인당 자체연구비 2위, 컴퓨터공학전공은 72개 대학중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4위를 기록하면서 25%이

상 50% 미만의 중상위권으로 평가됐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1994년 도입돼 올해 23년째를 맞고 있다. 평가지표는 △전임 1인당 국제학술지논문 △국제학술지 논문 피인용 실적 △전임 1인당 국내학술지논문 △국내학술지 논문 피인용 실적 △전임 1인당 외부지원연구비 △전임 1인당 자체연구비 △전임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순수 취업률 △유지 취업률 △재학생 중도 탈락률이다. 김해건 기자

평생교육단과대학 4개 학과 신설된다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등 신설
수시모집에서 154명 중 49명 지원해 미달
홍보팀 구성해 적극적인 홍보할 것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생교육 단과대학사업인 '미래융합대학'이 내년 신설을 앞둔 가운데 우리대학은 4개 학과가 신설된다. 신설될 학과는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이다. 건강뷰티향장학과는 전통적 뷰티와 의생명과학분야를 바탕으로 하는 메디컬 뷰티의 조화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뷰티 스타일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이다.

관광융복합학과는 농, 산, 어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융·복합 관광 분야에 접목시켜 지역 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강의와 토론뿐만 아니라 액션러닝 학습, 현장실습 등을 통해 창의성 배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관리학과는 자격증 취득과 부동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부동산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 정책, 개발, 평가, 관리운영 및 분석 등 종합적인 부동산 분야를 다룬다.

실버케어복지학과는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위한 고령사회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에 목적을 두고 교육철학과 인식, 정책적 비전, 실천적 역량 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이 구성돼 있다. 향후 사회복지 관련 기관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미래융합대학은 연 4학기제이며 야간, 주말과정으로 온, 오프라인 강의를 겸해서 진행된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를 선발하는 재직자 전형과 만 30세 이상 국내고등교육 학력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평생학습자 전형이 있다. 수시모집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로 모집이 마감됐으며 정시모집은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 오후 5시까지이다. 등록금은 신청하는 학점만큼 납부

하는 방식으로 인문사회계열은 학점당 10만1000원이며 자연계열은 학점당 12만4000원이다. 한편 21일 마감된 수시모집에서는 모집인원 154명 중 49명이 지원해 모집인원이 미달됐다. 수시모집이 저조한 것에 대해 기획평가과 현장철 주무관은 “아직 홍보가 잘 되지 않아 평생단과대학사업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화여대 사태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돌아 수시모집결과가 저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학관리과에서 홍보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정시모집에서는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기자

수시모집 경쟁률 평균 3.42대 1

제주대는 9월 21일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1188명 모집에 4063명이 지원해 평균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모집단위별로는 일반학생 2전형 예수의예과가 2명 모집에 74명이 지원해 37.0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

과정 지역인재육성 특별전형은 6명 모집에 27명이 지원해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경쟁률은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오는 12월 16일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체육학과, 취업캠프 개최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학과장 김미에 체육학과 교수)가 9월 8-9일 자연대 세미나실과 서귀포연수원에서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취업캠프'를 개최했다. 캠프는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체육분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취

업캠프에선 블랙야크 강대선 회장의 '세상은 문밖에 있다', 해피파인더 김재연 대표의 '나에게 직무란?(직무와 역량의 올바른 이해)'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취업캠프를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과 모의면접 경험을 쌓게 돼 취업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

법전원, 교류프로그램 성공적으로 진행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일본 소카대학 법과대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교류프로그램이 성공리에 진행됐다. 2008년 시작돼 올해로 8년째다. 일본 소카대학 교수 1명과, 학생 4명은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우리대학을 방문해 교류 수학을 했다. 이 기간 중 양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학술교류 행사와 제주지방 법원,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변호사회도 방문해 시설킨학 및 일본 소카대학 학생과의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찬 원장은 “일본 소카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수년간 상호방문을 통해 학술교류와 우애를 돈독히 하고,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양교간의 상호발전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정희 기자

www.ihalla.com

제주지역

신뢰도 1위! · 발행부수 1위!!

리얼미터 전국지방신문 여론조사 · 2015년도 한국ABC협회 인증

제주의 대표신문 한라일보가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한라일보



» 대한의 역사, 만주에 가다 <중> 조국의 광복을 위해

만주, 대성중학교·청산리 등 독립운동 근거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의 투쟁기 엿볼 수 있어

중국 동북3성 본보 해외 취재

2016년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8박9일간 철기이범석 기념사업회(회장 박남수 전 육군중장)에서 운영하는 광복청년아카데미에서 제11회 해외사적지 탐방이 진행됐다. 선조들이 남겼던 위대한 영토인 만주를 기자가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 <편집자 주>

◇기회의 땅, 만주

단원들이 이동한 곳은 청산리 대첩비가 있는 청산리였다.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상실한 후 선조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 연해주 등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진행했다. 조국광복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동녕, 이희영 등의 신민회 인사들이 서간도 삼원보에 신한민촌을 건설했고 자치 및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경학사, 부민단 등을 조직했다. 또한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강습소(후에 신흥무관학교로 개칭됨)를 설립했다. 북간도에서도 중광단 등 많은 항일무장단체들이 조직됐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떨어졌을지 생각하며 차창너머를 바라봤다.

◇충성여 울려라, 청산리 전투

어느덧 버스는 청산리대첩비가 있는 중국 연변자치주 화룡시에 도착했다. 단원들은 청산리 마을에 도착하고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대열을 맞춘 단원들은 청산리 전투에 대한 설명을 듣기 시작했다. 청산리 전투란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지휘하는 대한독립군 등 만주 독립군 연합부대가 만주길림성 화룡현 청산리 백운평, 천수평, 완루구 등지에서 간도로 출병한 일본군과의 전투를 통합해 부르는 말이다.

봉오동전투 등에서 독립군에 패배한 일본군은 훈춘 사건(1920년 일본이 중국 마직을 매수해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고의로 습격하게 한 사건)을 일으켜 이를 계기로 만주에 독립군을 토벌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6일간에 전투에서 독립군은 화룡현 내의 여러 지

역에서 일본군과 교전하게 되고 청산리 골짜기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한다. 전투는 21일 백운평전투, 22일 천수동, 완루구 전투, 23일 맹개골 전투, 24일 천보산 전투, 26일 고동하 전투 등이 있다.

설명을 모두 들은 후 기수들은 기념사업회 깃발과 태극기, 오성홍기를 들고 청산리 대첩비석으로 향했다. 그 순간 중국 공안들이 갑자기 길을 막아섰다. 태극기를 걸고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전협의내용은 태극기와 함께 오성홍기를 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공안 측은 갑자기 말을 바꿨다. 단원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태극기를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공안들은 끝까지 안한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단원들은 태극기는 물론이고 오성홍기 또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렇게 기념사업회 깃발만 들고서 대첩비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정준 사무총장은 계단을 오르며 중국의 외교적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이 사드문제로 인해 마찰을 빚자 사소한 것부터 보복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황당했으며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첩비가 있는 곳은 중국의 영토였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대첩비에 오르니 거대한 비석이 단원들을 반겼다. 여태 봤던 독립운동 기념물 가운데 단연 으뜸이었다.

비석의 뒤쪽을 향해 걸어보니 대첩비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청산리 전투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인 설명은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의 문은 마지막 문장이었다. “청산리 대첩 80주년에 즈음하여 연변지역 각 민족 인민은 이 기념비를 세워 선열들의 충혼을 기리고 그 위업 천추 만대에 전하노라”며 마치 이 기념비를 연변시에서만 설립한 것으로 돼 있었다.

설립 당시 국가보훈처에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 “대한민국이 지원을 해”라는 의미의 말은 빠져 있었다. 자랑스런 역사의 순간을



운동주 시인이 다녔던 대성중학교(사진 위). 1920년 김좌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전투에서의 대승을 기념하고자 만든 청산리대첩기념비(옆).

보는 자리였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남는 자리였다.

◇운동주 시인이 다녔던 대성중학교

버스에 탑승 후 용정시로 이동했다. 용정시에서 방문한 곳은 일제강점기 때 운동주 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성중학교(현 룡정중학)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운동주 시인의 흉상과 그의 시 ‘서시’가 적힌 시비였다. 시비 앞에서 시를 낭독했다. 책을 통해 봤었기에 낯설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교 앞에서 낭독하는 시는 색다른 느낌을 줬다.

건물 2층에는 사적전시관이 있었다. 운동주의 중학교때 사진과 화보, 책자를 비롯해 1900년대 초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용정과 주변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었다. 또한 이상설 선생의 서전서숙 기념관도 있었다. 서전서숙은 용정 최초의 근대식 교육을 실시한 곳이다.

기념관 가이드는 용정중학교 교사들이 진행했다. 중국어가 아닌 조선어를 사용해 설명을 했는데 어조와 표현 등이 한국어와는 조금 달라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후 망명을 한 선조들이 만주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나씩 설명했다.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를 비롯한 일제에



항거했던 전투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며 대성중학교를 졸업한 독립운동가에 대해 소개를 했다. 기념관 안에는 김일성의 업적도 적혀 있었는데 아무 생각없이 가볍게 지나쳤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외교, 군사, 학문 등 여러 부분에서 투쟁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를 흘린 선조들을 생각하며 전적지와 기념비 등을 직접 눈으로 보니 숙연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이 떠올랐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김해건 기자

중국 공안에게 감시받는 탐방 왜?

사드·조선족 독립 문제로 제재 걸어 한·중 간의 관계 잘 해결해 나가야

거리의 대부분을 버스로 이동하는 탐방단에게는 항상 자동차 한 대가 따라 붙었다. 뒤를 밟는 차량은 중국 공안이다. 고구려의 유적지에서든, 독립군의 전적지든 어디든 쫓아 다니며 감시했다. 그들의 통제 하에 있었기에 태극기를 들거나, 애국가를 부르는 등 국가와 관련된 행동을 하는 눈치를 보게 됐고 실행할 경우 제재당하기 일췌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소한 행동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유독 이번 탐방에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었을까?

탐방을 함께한 한 국방연구원은 “중국인 한국인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조선족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조선족이 독립을 해버리면 다른 소수 민족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안들을 풀어 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에서도 나오듯 중국은 현재 소수 민족들의 독립의지를 꺾기 위해 많은 정책을 펴고 있다. 티베트나 위구르족처럼 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시위를 진행하는 등 대륙내에서는 아직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국가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중국이 G2라고 불릴 만큼 강대국이 됐지만 여전히 중국 사회 내부는 경직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중간의 악화되고 있는 관계도 이유 중 하나였다. 중국에 있을 7월 중순 당시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 러시아간의 갈등은 예상된 문제였는데 그 불씨가 역사탐방을 온 단체들에게도 된 것이었다.

중국과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행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에게는 크나 큰 타격이었다. 한국정부는 사드배치가 남한의 방어자원이라고 발표했지

만, 중국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봉쇄 혹은 고립정책에 편입해 자신들을 억제하는 군사적 대응이나 협력체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은 한국 정치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기도 하고 기업과 정부기관도 경제적으로 제재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아직도 위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전히 대륙 내부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 민족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의 사드배치도 막지 못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보면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공안을 투입해 한국인들을 감시할 것이며 만주에 있는 유적지에 접근할 때도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는 실태라가 엉킨 것처럼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다. 하나의 문제는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고 결국 갈등의 시발점이 된다. 참여한 대립 속에서 한·중간의 외교가 다시 한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김해건 기자



태극기를 들고 올라갈 수 없었던 청산리 대첩비 앞 계단.

취업전략본부 탐방기 ① 성격유형검사·적성검사

내 성격에 맞는 직무를 찾는 것이 취업 성공의 지름길

학생들의 목표는 대부분 취업이다. 이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시험을 준비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서관에는 많은 학생이 책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취업과 관련해 학교의 도움을 잘 받고 있지는 못하다. 학교의 취업 프로그램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제주대는 2012년부터 취업전략본부를 두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있다. 이에 제주대신문은 취업전략본부의 업무를 성격유형검사·적성검사, 채용박람회, 단과대학별 취업지원관 제도, 해외 인턴십 등 4개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무조건 이긴다는 것이다. 취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를 알고 기업을 알아야 취업에 한층 다가가기 쉬울 것이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성격을 파악하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나 직무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이는 애니어그램, MBTI 같은 성격유형검사로 알 수 있다. 구직자가 기업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채용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해 알아야 인재를 성공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년 전까지는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중점적으로 봤다. 그 결과 소위 ‘스펙’이 높은 사람만 입사했고 대한민국은 ‘스펙’을 쌓기 위한 학생들로 넘쳐났다. 하지만 기업들은 ‘스펙’이 높다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 직무적성검사

성격유형검사 상시적으로

직무적성검사 특강 진행

특강 참여학생 열의 높아

를 도입했다.

국가 또한 2013년부터 NCS(국가직무능력 표준)를 강화시켰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삼성은 GSAT라는 명칭으로 시험을 보고 있으며, 다른 기업도 각자의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채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격유형검사에 비해 중요성이 크다.

취업전략본부에서는 성격유형검사와 직무적성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먼저 애니어그램 등 성격유형검사를 상시적으로 열고 있다. 애니어그램은 9개의 유형으로 나뉘 성격을 알려진 후 자신의 성격과 맞는 진로를 소개한다. 취업전략본부에서 정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MBTI 검사도 있다. 이는 16개로 성격을 나눈다는 점이 애니어그램과 다르다.

학생들의 직무적성능력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취업전략본부에서는 “2016년 공사·공기업 대비 직무적성검사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9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8회에 걸쳐 열린다. 재학생과 졸업생 67명이 특강을 듣는다. 이 특강은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채용 과정에서 진



9월 23일 ‘2016 공사·공기업 대비 직무적성검사 특강’이 열렸다. 특강 강사는 이시한 강사이며, 60여 명이 넘는 학생이 특강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

행될 직무적성검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9월 8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채용설명회를 학내에서 개최하고 직무적성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지난 1학기에도 직무적성검사에 대한 특강을 이들에 걸쳐 진행했다.

9월 23일 교양동 4319실에서 열린 ‘2016년 공사·공기업 대비 직무적성검사 특강’ 현장을 가봤다. 금요일에 캠퍼스는 한가했지만 그곳은 달랐다. 60여 명의 학생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특강 강사는 이시한 SH미래연구소 대표였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진행된 강의였지만 학생들은 졸린 기색 없이 강의에 집중했다. 쉬는 시간에도 강사에게 궁금한 점을 물으러 가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상환(생명화학공학과 2016.2 졸업)씨는 “지난번 학기에도

이시한 강사에게 직무적성검사 특강을 들었는데 이틀이라 짧았다”며 “이번 학기에는 8회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 나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강사도 학생들의 열정에 보답하듯 열변을 토해냈다. NCS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언급했고 직무적성검사 유형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시한 강사는 “현재 공사·공기업이 스펙보다는 직무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 강의는 직무적성검사의 원리를 이해시켜 공기업이나 공사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펙이 낮다고 판단해 공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학생들의 도전 의식을 주문했다.

김동현 기자

인터뷰 취업전략본부 김선 취업지원관

“직무적성검사가 구직의 당락 가른다”

▶성격유형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니어그램 검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애니어그램은 9가지 성격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성격유형검사이다. 취업전략본부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검사해 주고 있다.

▶직무적성검사가 왜 중요한가?

NCS(국가직무능력 표준)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대기업·공기업·공사는 채용 과정에서 직무적성검사를 필수로 본다. 서류 전형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스펙’을 보지만 이전만큼 중요하게 여겨지 않는다. 스펙보다 직무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채용 과정에서 직무적성검사를 본다.

그만큼 NCS가 중요한데 재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 도외에 있는 대학교들은 중요성에 대해 알고 교과목으로 편성하거나 특강도 많이 열고 있다. 우리 학교도 2학기에 NCS와 관련해 초빙강사를 초청하고 8회에 걸쳐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9월 8일에 열린 ‘손에 잡히는 취업전략 아카데미’에서도 직무적성검사를 언급했다.

9월 8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명회가 열렸다.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채 때 제주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NCS에 대해 잘 몰라서 설명회 중간에 NCS에 대해 알려졌다.

▶적성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 달라.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과 공기업 내부

분은 서류 전형, 직무적성검사, 면접 등 3가지 단계로 채용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서류 전형은 실제 채용 인원보다 훨씬 높은 배수로 모집하기 때문에 번

별력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구직자를 직무적성검사에서 거른다. 면접 전형은 직무적성검사에 합격한 소수의 인원만 보기 때문에 수월하다. 합격의 당락은 직무능력 평가에서 갈린다.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학생들이 취업에 관심 있는 것에 비해 취업전략본부에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종 SNS를 운영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CNUCAREER’, 페이스북은 ‘제주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카카오톡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트위터는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로 개설돼 있다. SNS를 통해 취업전략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알리기 때문에 팔로우 돼 있다면 학생들이 정보를 얻기 훨씬 쉬울 것이다.

우리는 학생이 일하고 싶은 일과 적성 등을 고려해서 마음에 맞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취업은 도전하는 자에게 열려 있다. 학생들이 서슴없이 취업전략본부의 프로그램을 참여했으면 좋겠다.

김동현 기자



김선 취업지원관

하늘과 땅에 서약하는 전통혼례식

전통혼례에서 삼서정신 행해져

서천지례, 근배례 등 술을 통한 의식 많아

우리에게 결혼식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검은 턱시도를 차려 입은 신랑의 모습이 익숙하다. 피아노에서 익숙한 음악이 흐르면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고...이것이 우리가 혼례를 알고 있는 결혼식의 모습이다. 삼색의 한복을 입고 연지곤지를 짙은 신부의 모습. 사극에서만 보던 낮선 모습이라고 느껴진다면 전통혼례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전통혼례 절차

신랑, 신부는 각 가정에서 조상께 차례를 지낸다. 조상을 모시는 사당에 가서 차례상을 차리고 누구와 혼인을 한다고 조상께 알리는 의식을 한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 교혼을 받는다. 신랑과 신부는 교혼을 받아내고 부모님께 교혼대로 잘 살겠노라고 맹세한다. 본격적인 전통혼례 예식순서는 이렇다.

전안례→관세우(손 씻기)→교배례(신랑 신부 맞절)→서천지례(하늘에 알림)→서배우례(신랑 신부 맹세)→근배례(술마시기)→성혼선언

‘전안례’는 나무 기러기를 든 신부어머니의 인도로 신랑이 신부 댁에 백년해로의 상징인 기러기를 예물로 드리고 신부를 데려청(신부댁 마당)으로 모시고 나오는 의식이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신랑은 풍속 신부는 서쪽에 선다. 방위는 예절 방위를 따른다. 즉, 주례가 선 곳을 북쪽이라고 지정하고 이에 맞춰 신랑 신부가 서는 방향이 결정된다. 그 후 ‘점동축’ 불을 밝힌다. ‘관세우’는 신랑과 신부가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는 의미로 예식 전 손을 깨끗이 씻는 의식이다. ‘교배례’는 신랑, 신부가 평생을 같이 하고자 절을 주고받는 의식을 말한다.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절을 한다. 원래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절을 하는게 원칙이지만 의식을 할 때는 2배로 한다. ‘서천지례’는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을 하늘과 땅에 맹세하는 의식으로 술잔을 높이여 두고 하늘에 서약하며 땅에 술을 세 번 비워 땅에 맹세하는 것이다. 여기서 서(誓)는 서약을 한다는 의미이다. ‘서배우례’는 일생토록 아끼고 사랑할 것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서약하는 의식이며 ‘근배례’는 신랑과 신부가 천생매부의 인연을 확인하고 두 사람이 표주박 잔에 술을 나눠 마시고 입식동제가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이다. ‘성혼선언’은 부부가 됐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전통혼례복

신부는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 혹은 연두색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원삼을 입었다. 원삼의 소매는 빨간색, 연두색, 파란색을 사용한 색동 소매의 형태였다. 전체적으로 금박을 수놓아 화려하게 장식했고 신부의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두 손 위에는 길게 하얀 천을 덮었다. 신랑의 경우 정해진 색깔 없이 저고리와 바지, 도포를 입고 관복을 입었다. 머리에는 사모(紗帽)를 쓰고 목화(木靴)를 신었다. 과거 마을에는 공동으로 상례 관련 도구를 보관하는 ‘행상 집’이 있었는데, 혼례 용구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보관하는 집이 따로 있었다. 혼례복 역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혼례 당일 날 빌려 입었다.

◇전통혼례에 대한 궁금증

〈하축을 밝힌다〉

신문기사를 보면 결혼식을 올리며 ‘하축을 밝힌다’는 글들을 종종 보곤 한다. 이는 점동축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 조선시대에는 혼례를 해가 저무는 저녁에 올렸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혼례를 올릴 때 촛불을 밝히는 것에서 유래가 됐다.

또 ‘하축’이란 신방을 밝히는 초를 ‘하축’이라 불렀다. 밑초를 색색으로 물들인 화려한 초는 제작이 어렵고,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겨 사적으로 사고파는 것이 금지될 정도의 사치품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 첫날 밤이 특별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금지 규정에 예외를 두었다고 한다. ‘하축을 밝히다’가 ‘결혼하다’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여기서 유래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 촛불을 밝히는 것이 결혼을 의미하는 관공구로 쓰이게 된 것이다.

〈나무기러기〉

혼례상에 올려져 있는 나무기러기는 기러기가 갖고 있는 상징성으로 인해 혼례 때 기러기는 길조로서 예물로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러기는 믿음을 지키는 새로, 제 짝을 저버리는 일이 없고 짝이 죽으면 다른 짝을 구하지 않으며, 더욱이 한 쪽이 죽으면 다른 쪽도 따라 죽는 새로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날아다닐 때도 항상 선두를 중심으로 나란히 줄을 맞춰 날고, 앉아 있을 때도 상하가 엄격해 순위의 뜻을 어기는 법이 없는 등 기러기



는 질서를 알고 위아래를 가릴 줄 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기러기는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는 덕목과 부인이 남편을 따른다는 상징성도 갖춘 동물로 여겼다. 이에 결혼 생활의 본보기로 삼고자 나무로 기러기를 만들어 혼례의 으뜸 예물로 사용하게 됐다고 전한다.

〈이바지음식〉

예로부터 신랑 신부를 맞이할 때 양가에서 마련한 큰상 음식이 각각 신랑과 신부 댁으로 상수라 해서 보내지던 풍속이 시대변천에 따라 차츰 사라져 가면서, 그것이 예물 음식으로 주고받는 풍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바지 음식을 보고 신부 댁 음식 솜씨인 맛, 간, 모양상 등에 대해 시어머니가 알아서 새 며느리의 음식훈련에 참고했다.

상수 또는 봉송 돌린다는 용어가 이바지 음식으로 변했다. 이바지는, 잔치를 뜻하는 ‘이바다’에서 변한 말이라고 한다. 힘들어서 음식 등을 보내 주는 일과 그 음식을 뜻하기도 한다. 이바지 풍습은 지방마다 다르다. 제주도에서는 혼례에 쓸 물자를 신부 댁에 보내는 것을 이바지라고 한다. 약혼 후 혼례 날 전에 적당한 날에 보내는 데 품목은 돼지, 닭, 두부 또는 두부 만들 콩, 쌀, 술 등이다.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연지와 곤지로 나뉜진다. 연지와 곤지는 둘 다 동그란 빨간 형태이지만 빨에 적거나 입술에 바르는 것이 연지이고 이마에 찍는 것을 곤지라 한다. 곤지는 눈썹 사이 미간의 위쪽에 찍는다. 즉, 연지곤지는 양 볼에 연지 이마에 곤지를 찍어 총 세 군데 붉고 둥근 점을 찍는 것을 말한다. 연지곤지는 젊고 아름다운 새색시, 순결한 처녀를 뜻한다고 한다.

〈삼서정신〉

혼례에서 임하는 세 가지 서약을 뜻한다. 첫째는 ‘서부모’로 신랑과 신부가 혼인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부모에게서 서약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를 있게 하신 조상과 부모에게 은혜의 고마움을 기리며 자식의 도



전통혼례를 한 신부와 신랑. 맨 오른쪽 김성훈 정교(사진 위). 근배례 순서, 표주박 잔에 담긴 술을 마시는 신부(아래).

리를 다할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둘째는 ‘서천지’이다. 혼인이 천지의 음양치, 즉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므로 음양의 표본이며 창조자 절대자인 초능력자, 하늘과 땅에 대해 서약하는 것으로 부부의 무궁하고 불변하는 사랑과 천지의 이치에 따르겠음을 서약하는 정신이다.

셋째는 ‘서배우’로 서로가 배우자에게 사랑과 신뢰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전통혼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 제주항교 제29대 김성훈 정교는 “예부터 우리가 혼례를 올릴 때 삼서정신을 행하는데 현대화된 결혼예식도 좋지만 전통적인 혼례 의식을 통해 삼서정신을 기억하면 뜻 깊은 날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한다”고 말했다.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던 전통혼례. 그 안에 담긴 음식과 의식 하나하나에 부부가 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었다. 재미있고 뜻 깊은 의미가 담긴 전통 혼례식. 당신에게 있어 중요하고 행복해야 할 결혼을 더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김정희 기자

권하고 싶은 책

언론의 사명을 다시 돌아보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빌 코버치·톰 로젠스털 I 역자 이재경 I 한국언론재단



“언론의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 끌어 들어 부관참시(削棺斬屍)하듯 과거사를 끌어올려 난도질 하는 것은 언론의 정도일 수가 없다. (중략) 적어도 건전 언론이라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건전한 이성적 비판과 쓰레기 같은 감정의 배설물 같은 비난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제주투데이 김택남 주필(전 제민일보 편집국장)이 자신의 기명칼럼에 남긴 글이다. 그의 말대로 제주지역의 저널리즘은 위기이다. 다시 그의 칼럼을 보자. “지난해 제주도가 보내 언론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34건에 18억1495만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민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다. 시쳇말로 ‘돈 받고 조지는 언론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여간 씁쓸하지가 않다.”

이 대목에서 헛갈린다. 언론이 (정부나 지자체) 돈을 받으면 보도기사를 통해 행정 정책 홍보에 열을 올려야 정상(?)이다. 작금의 전국언론의 보도행태가 그러하다. 미디어오늘이 정부부처 언론홍보 내역을 확인한 결과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저널리즘은 다르다. 돈은 돈대로 받고, 비판은 비판대로 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언론사의 경우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도 기자의 몫이고, 비판을 하는 것도 기자의 몫이 돼버렸다. 그래서 언론의 본령과 사명의 자체로 저널리즘을 하려는 기자들은 허무함과 참담함으로 그 직을 그만두려 한다. 독자가 시청자들은 이러한 속내를 알아차린 이상 더 이상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 때일수록 저널리즘의 정도(正度)를 지켜야 한다. 이 정도가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다. 기자를 꿈꾸거나, 기자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지침서와 같다. 현대사회의 언론을 이해하려는 일반인들이 읽을 만한 교양서로도 충분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바다 끝 지평선이나 언덕 너머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실제로 보

고 듣고 겪을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을 알고 싶은 욕구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명확한 결론을 찾는 힘을 의미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은 안전과 평안을 준다. 그래서 저널리즘은 지금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 인간이 고안해 낸 최고의 사회 시스템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인간이 만든 어떤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다. 이로 인해 언론사와 기자의 뉴스 생산 독점 체제가 해체 됐다. 언론사와 기자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것은 알 필요가 없는 지를 자신들이 결정했지만, 이제 그 권력이 사라지게 됐다.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저널리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제주도 같은 지자체 역시 언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각종 SNS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저널리즘을 공급하며, 보도 자료의 제작과 배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협조할 의사가 있는 언론사에게 금전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까지를 포함한다. 지역언론이 아니더라도 이제 대중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무수한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널리즘의 정도를 찾을 해법은 무엇인가? 그 해법이 바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녹아 들어있다. 저자들은 책에서 모두 10개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서도 2번째, 5번째, 9번째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2번째 원칙은 “저널리즘의 최우선적인 충성 대상은 시민들이다”, 5번째 “기자들은 반드시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자로 봉사해야 한다”, 9번째 “기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양심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이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언론의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용복 팀장

》 후쿠오카를 통해 본 일본의 모습

거리 환경, 질서의식 등 일본의 선진의식 본받아야

본지 기자 일본 후쿠오카 현지 해외 취재

일본, 역사에 남긴 과오는 뉘우치지 않아

일본은 크게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인 4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기자는 후쿠오카를 방문했다. 후쿠오카는 일본서 세 번째로 큰 섬이며 규슈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항로도 꽤 개척 돼있어 인천, 대구, 부산 등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다. 또한 부산에서 배를 통해서도 후쿠오카를 방문 할 수 있다. 쉽게 방문할 수 있다보니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다. 그래서였을까, 후쿠오카 공항을 비롯, 시내에는 한국말로 표지판이 적혀 있고 식당에도 한글판 메뉴가 존재했다. 한국인에 대한 편이가 잘 갖춰져 있다.

◇활동한 시민의식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후 기자가 가장 먼저 간 곳은 하카타. 이곳은 많은 관광기업이 밀집해 있고 교통의 요충지다. 후쿠오카 공항을 통해 규슈로 들어왔다면 기자 여행의 시작점은 하카타 역이다. 규슈 전역으로 가는 대부분의 기차가 이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슈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신칸센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주변에는 대형 쇼핑몰들이 역과 연결돼 있는데 주변에는 박물관과 공간과 호텔 등이 있다.

일본을 처음 방문해 본 기자는 다소 놀랐다. 일본의 거리는 한국과는 너무도 달랐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다거나

담배를 피는 경우가 흔한데, 일본사람들은 한국인들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없었고 휴연도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피웠다. 또 다른 차이는 공공질서였다. 한국인들은 버스나 지하철이 오면 무질서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인들은 가지런히 줄을 서면서 기다렸다. 세차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으면 먼저 지나가라고 배려를 해줬다. 사소한 잘못을 하면 ‘스미마세(미안합니다)’를 항상 외쳤고 식당의 종업원들은 마치 자신의 가족을 맞는 것처럼 ‘이랏사(마세(어서요세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감사합니다)’를 연거푸 반복했다. 이런 행동들을 보며 왜 사람들이 일본을 자주 방문하는지 느껴졌다.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인들에 비해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여유도 느껴졌다.

◇일본의 신사문화

시내를 벗어나 사람들이 거주하는 조용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곳곳마다 신사가 보였다. 일본의 신도 신앙에 의거해서 신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인 신사는 마을을 지날때마다 하나씩 있었다. 신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야스쿠니신사였다. 보통의 일본신사라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에 상관없지만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 태평양전쟁당시 죽은 일본군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렇기에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한국인의 입장에서선 분노감이 타오를 수밖에 없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고코쿠 신사였다. 신사 앞에는 ‘도리’라는 문이 있었다. 그 문을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외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란색 깃발들이 여러 개 꽂혀 있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원래는 일반적 신사였지만 후에 전쟁당시 지역 출신 전사자의 영령을 기리기 위한 곳으로 변경됐다고 한다. 신사를 한바퀴 둘러보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방문한 신사는 구시다신사였다. 헤이안시대인 757년에 세워진 신사로 불로장생과 상업 번성의 신을 봉안하고 있었다. 1000년의 은행나무가 있으며 후쿠오카의 여름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오이마치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다. 신사내부에는 소원을 적는 곳도 있었고 일본사람들은 종을 치며 참배를 하기도 했다. 고코쿠신사와는 다르게 구시다 신사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었다. 다소 유명한 신사인 것 같아 인터넷을 검색했다. 알고보니 이곳은 일본 자객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데 사용한 칼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했다. 외부인에게 공개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칼이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불쾌함이 들었다. 왜 아직까지 이런 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다.

◇신칸센을 타고 고쿠라역으로

신사를 구경한 후 다시 하카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후쿠오카 현 기타큐슈시로 이동하기 위해 신칸센에 몸을 실었다. 표를 끊는 모든 과정이 한국어로 돼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안내방송은 모두 일본어였다. 그렇기에 움직이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됐고 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다행히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신칸센에 탑승했다. 신칸센은 한국의 KTX와 비슷한데 다소 요금이 비싸긴 했지만 그 속도는 엄청났다. 일반열차를 타고 가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를 신칸센은 단 17분만에 갔다. 고쿠라역에서 하차한 기자는 기타큐슈에 있는 고쿠라성을 보기 위해 움직였다. 가는 길에는 일본의 전통시장이 있었다. 잠시 구경할 겸 안으로 들어가니 온갖 해산물과 육류 채소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장을 벗어나 2km 정도를 걸었다. 그리고 고쿠라성에 도착했다. 고쿠라 성은 엄청난 자태를 뽐냈다. 1602년 호소카와 다다오키 영주에 의해 세워진 성으로 중국, 한국, 유럽의 성을 융합시킨 구조의 성이다. 1866년 소실된 성은 현재는 1959년 재건된 천수각만 남아 있었다. 책에서 보던 일본의 전통 성의 모습은 아주 웅장했던 옛 성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성 바로 옆에는 고쿠라정원도 있는데 나무가 우거진 곳에 연못이 하나 있는 모습이 마음을 편안히 해주기 안성맞춤이었다.

관람을 마친 후 기차를 타고 모지코 역으



하카타 역에서 바라본 일본 시내의 모습(위).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을 보관중인 구시다 신사(아래).

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유럽선을 타며 주변을 돌아봤다. 규슈 최북단에 있는 이곳에서 혼슈에 있는 시모노세키가 보였다. 또한 혼슈와 규슈를 연결하는 다리로 볼 수 있었다.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

과거 한반도를 식민지배 했던 나라이기에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먼 곳이다. 기자 또한 일본 땅을 밟기 전까지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다. 하지만 일본거리를 다니면서 본 일본인들의

모습은 그동안의 편견을 산산조각 냈다. 일본인들의 행동은 우리의 행동과는 비교됐다. 일본여행중 기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개를 끄덕이고 감탄했다. 일본이 왜 선진국이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의 모습에 반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이 여러 부분에서 일본을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여유와 선진의식은 아직 따라 가려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해건 기자

» 오래된 문화를 찾아서 <3> 제9회 제주해녀축제 : 숨비소리, 바다 건너 세계로!

질푸른 바다에선 숨비소리가 들린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원 해녀굿 열려

해 저들할수록 방문객 증가, 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나누끼고 머리칼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 머리카락을 엉클어 놓으니 “아, 가을이구나”하고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다. 높고 푸른 하늘, 아이들의 손에 하나씩 쥐어 진 솜사탕 마냥 몽실몽실한 구름, 파사로운 햇살, 하늘을 보고 환연한 가을이 왔음을 비로소 알아챈다. 가을과 함께 찾아온 제9회 제주해녀축제. 여름이 그냥 가기는 아쉬워 심술을 부리는지 때 아닌 늦더위로 사람들의 옷차림은 아직 가을이 오지 않은 모습이었다. 가을 내음에 취해 긴발을 꺼내 입은 것이 낭패였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강렬한 햇살에 축제를 방문한 사람들은 저마다 시원한 그늘을 찾아 자리 잡고 있었다.

◇해녀들의 축제

9월 24일 오전 11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해녀박물관에 도착했다. 이미 거리퍼레이드와 개막식은 끝이 나 있었다. 메인무대 잔디광장에서는 메역조문(미역채취)공연이 한창이었다. 해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미역을 채취하고 그 미역을 햇빛에 말려서 장에 내다파는 과정을 연기하며 춤을 췄다. 장구와 판소리, 북소리가 어우러져 공연의 흥을 돋웠다. 공연의 마지막에는 춤판이 벌어졌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공연자와 관람객이 어우러진 흥겨운 자리였다. 원을 만들어 뱅뱅 돌다가 가운데로 모여 손을 이리저리로 흔들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함과 즐거움이 묻어났다.

또 해녀 분들을 더 즐겁게 만들었던 것은 각설이 공연이었다. 재지있는 입담으로 공연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이어 구수한 노래를 부르며 해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흥이 오른 해녀 분들은 넘치는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각설이와 함께 춤을 추는가하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의자 위로 올라 박수를 치기도 했다. 어느새 무대를 벗어난 각설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객석까지 내려와 그 안을 헤집고 다니며 열창을 했다. 무대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공연장은 댄스파티장이 되었다. 해녀 분들의 넘치는 흥에 놀랐다. 제대로 축제를 즐기는 해녀 분들과 관광객들을 보며 이토록 뜨거운 축제의 열기에 놀랐고 동시에 나까지 즐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각설이 공연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춤 웅문사 부근에서 진행되는 해녀학교 물질대회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있어 즐길 거리

가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행사장으로 가는 자세한 안내 표시가 없는 것이 아쉬웠다. 웅문사로 가는 바닷가에서는 한창 소리와 광이 맨손잡이 체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온 가족이 모여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소리와 광이를 잡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한참동안 바라보며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렸다. 그날따라 유독 눈이 시리게 질푸르던 바다와 햇볕에 빛나는 모래사장에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소리를 열심히 찾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과 오버랩 되면서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던가’하고 잠시 바다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질푸른 물결을 넘실거리면서 내 눈을 시리게 했다.

오후 2시가 되어 물질대회를 하는 바닷가에 이르렀다. 해녀학교별로 대회를 하고 있었고 내가 도착했을 때는 법한 해녀학교의 새내기 해녀들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10분 남았습시다” 사회자의 말에 수면을 오르내리는 해녀들의 몸놀림이 빨라졌다. 벌써 태악을 무겁게 채운 해녀는 제법 여유를 부리며 물속을 헤엄쳤고 태악을 채우기에 조금만 해녀들은 숨을 헐떡이며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물 밖에선 고참 해녀들이 새내기 해녀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을 보냈다. 또 그 주위로 각종 언론의 취재 카메라가 새가떼처럼 둘러쌌다.

경기가 끝나자 해녀들이 하나둘씩 나오며 태악에 담긴 해산물의 무게를 재기 위해 저울 앞으로 모였다. 과연 누가 1등을 했는지 취재진과 구경꾼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었다. 결과는 2등과 0.1kg 차이로 9.9kg의 해산물을 모은 해녀가 1등을 거머쥐었다. 그녀는 우승포즈를 지으며 1등의 기쁨을 만끽했다.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 해녀 불턱가요제에서는 해녀 분들이 마음껏 가창력을 뽐냈고 초대가수 설은도씨가 등장하자 나이를 잊은 듯 연신 “운도 운도”를 외치며 말팔랑이 소녀로 변해 있었다.

◇숨비소리, 바다 건너 세계로!

메인무대 옆의 원형무대에서는 오후 4시부터 해녀굿을 벌였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제주해녀문화의 전승을 기원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 해녀굿에 집중하며 관람했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외국인들도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영화에서만 보던 굿을 직접 볼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 됐다고 생각한다.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발걸음을 총총거리며 손을 흔들거리고 노래를 부르



메역조문 공연 중 미역을 말리고 있는 해녀들(사진 위).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는 풍선을 들고 사람들이 해녀굿에 참여하고 있다(아래).

듯이 읊조리는 모습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해녀들의 속담 중에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해녀의 물질 작업이 매우 위험하다는 뜻이다. 해녀들은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신에게 의지한다. 해녀굿은 해녀들이 바닷가에 있는 해신당에 찾아가 제물을 준비해 물질작업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을 말한다.

해녀굿이 끝나고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기 위해 준비된 풍선날리기 순서. 시원한 가을 바람을 타고 노랑, 분홍 풍선들이 날아갔다. 풍선을 따라 올라다 본 하늘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유네스코 등재의 꿈과 각자의 소망을 담은 풍선들이 검은 점이 되어 구름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서 있었다.

행사장 곳곳에는 향토음식을 판매하거나 아이들을 위한 퍼즐 맞추기, 페이스 타투 등의 부스가 마련돼 있었다. 축제기간동안 해녀박물관은 무료 개장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 특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박물관을 찾은 부모들은 해녀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아이들에게도 설명해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엄마, 왜 남자 해녀는 없어?”라는 아이의 순진무구한 물음에 “남자는 원래 없어”라고 대답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제주도민조차 잘 알지 못하는 해녀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린다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녀축제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김근태씨는 “비록 사라져 가고 있는 문화이기는 하지만 해녀의 서로 나누는 공동체문화를 본받고 이 가치 있는 문화를 전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는 자리여서인지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갔다. 혹시라도 등재가 된다면, 해녀문화가 더 알려지고 그 가치가 인정받는다면 더 이상 사라지는 문화가 아니라 오래도록 전승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걸어본다. 축제가 오래 이어져서 이제껏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해녀 분들이 이 축제에서나마 웃고 즐기며 고생했던 것은 다 잊으시길.

◇눈이 시린 해녀의 바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싣고 열린 창문으로 바람에 실려 오는 바다내음이 좋았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물들어 있었다. 낮에 뜨겁게 내리쬐던 태양은 가을을 담은 불그스름한 노을이 되어 바다 속으로 잠기려 하고 있었다. 바다에 반쯤 잠긴 태양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제주의 바다는 어쩌면 해녀의 눈물이 모이고 모여 그렇게 눈이 시리도록 질푸른 것은 아닐는지. 김정희 기자

제주유배기행 <6> 추사 김정희

고독 속에 피어난 수선화, 영원히 피다

10월이 다가오고 있는 어느 가을날. 대정으로 가는 평화로의 왼쪽에는 한라산이 있다. 한라산 아랫자락 시야에는 아직 설악이 아직은 불그스름한 억새, 바로 그 너머에는 말들이 산책하고 있다. 누군가라도 이 광경을 음미하면 마음이 넉넉해진다. 하지만 176년 전 어떤 남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바로 추사 김정희(1786~1856)이다.

추사는 유배지로 향하는 길의 심정을 동생에게 편지로 전했다. “대정으로 가는 길의 절반은 순전히 돌길이어서 사람과 말이 발을 붙이기도 어려웠고 절반이 지난 뒤부터는 길이 약간 평탄하였네. 간혹 모란꽃처럼 빨간 단풍 숲도 있었네. 이것은 육지의 단풍잎과는 달리 매우 사랑스러웠고 정해진 일정에 황급한 처지였으니 무슨 아취가 있겠는가”

1840년(현종6년) 9월 2일, 조선조에 세도정치가 드리웠던 시절, 순원왕후는 추사를 제주로 유배를 보냈다. 추사는 유배형 선고를 받은 지 한 달이 되던 날, 10월 2일 유배지에 당도했다. 추사의 유배지는 제주에서도 척박한 땅, 대정이었다. 추사는 1840년 10월 2일 유배지에 도착해 대정읍성 안성리 송계순의 집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위리안치(幽離安置)라는 유배형에 따라 집에는 가시울타리가 둘러졌다.

추사는 남부러울 것 없는 출세의 길을 걸었다. 1786년 6월 3일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다.

추사는 당시 조선에는 물론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석학이었다. 24세에 생원시험에 합격하고 10년 뒤 문과에 급제했다. 규장각 대교, 의정부 검상, 54세에는 예조참의를 거쳐 형조참판에 올랐다.

절해고도 제주도에서 시작된 추사의 유배는 외로움과의 싸움이었다. 하지

만 인간에게 고독이란 때때로 성숙의 기회가 되곤 한다. 제주유배 8년의 시간은 추사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의 글씨 ‘추사체’가 대표적이다. 유배 이전의 추사 글씨는 너무 기름지고 획이 두껍고 골기가 적다는 흠이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 귀양살이를 다녔던 후부터는 남에게 구속받고 본뜨는 모습이 사라지고 대가들의 장점을 모아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작품 세한도 역시 후대에 이르러서 인정받고 있다. 세한도는 서화일체를 추구한 김정희의 높은 정신세계를 반영한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문인화의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명작이다.

세한도는 1844년(현종 10) 제주도 유배시절 변함없이 책을 보내주며 스승을 생각하고 살피준 속 깊은 제자가 상상의 소나무 같은 의리와 절개를 담은 작품이다.

추사는 세상과 이별하기 3일전 마지막 작품을 남겼다. 서울 봉은사에 써준 작품으로 사찰에서 경판을 보관하는 공간인 ‘판전’의 현판을 써준 것이다. ‘판전’이라는 글자 옆에는 ‘71세된 과천노인이 아픈 가운데 쓰다(七十—果病中作)’이라고 쓰여 있다. 쓸쓸하게 세상과 이별한 추사의 말년을 알게 해준다.

서귀포 대정읍 추사로 44번지, 제주 추사관에는 추사의 흉상이 서 있다. 그 앞에는 그가 생전에 사랑했던 꽃 수선화 한 뿔기가 피어 있다. 추사는 수선화를 주제로 많은 시를 지었다. 다음은 그중의 하나이다.

“연못에 얼음 얼고 트랙에는 쌓일 무렵 모든 화초가 말라도 나는 선화처럼 향기를 발산하여 옥반의 정결을 펼치고 금옥의 아리따움을 간직한다.”

정쟁에 휘말려 비운한 삶을 살다갔지만 그는 앞으로도 여전히 후손들에게 ‘수선화’로 기억될 선인이다.

김명지 기자



서귀포 대정읍 추사로 44번지, 제주추사관에 있는 추사의 동상.

» 문화가 주는 위로 <3> 기억의 정원 두맹이골목

천 개의 돌, 기억의 밀피유(mille feuille)

돌이 많았던 ‘두무니머들’ 이 제주의 숨은 비경으로

‘보고 걷는 길’ 보다 ‘놀면서 추억을 쌓는 길’ 이어야

◇시간, 그리고 기억

“너무 빠르다.” 속하고 숨을 내린다. 마른 침을 한 번 삼킨다. ‘아차!’ 고개를 든다. 저만치 앞서 있는 것이 낯설다. 좁전까지 보던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을까.’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내다본다. 보이지 않는다. 시선을 거둔 다음 순간, 낯설게 보이던 것이 어딘가 낯이 익다. 그렇다. ‘너무 빠르다’ 하고 고개를 숙이기 전만 해도 곁에 있었다. 그것이 저만치 앞서 있다. 그만큼 뒤쳐졌다는 말이다. 다리에 힘을 준다.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어금니를 깨문다. 단나와 함께 비릿한 피 맛이 느껴진다. 앞을 본다. ‘벌어지고 있다.’ ‘아니, 이제는 너무 빨다.’ 그제야 뒤를 돌아다본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이 거슬러 펼쳐진다. 그게 ‘시간’이다. ‘기억’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초당 29.98프레임으로 되풀이되는 시간이다.

◇기억의 정원

제주시 동초등학교 남쪽, 현재 일도2동 주민센터의 북쪽에는 ‘기억의 정원’이 있다. 2008년부터 공공미술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조성된 ‘두맹이골목’이다. <제주시 일도2동 두맹이골목 공공미술프로젝트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사업의 최초 아이디어는 이 골목이 포함된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오영훈 도의원(현 국회의원)의 제

안에 의해서 이뤄졌다. 제주도에서 어쩌면 가장 난해하고 낙후된 동네의 하나인 일도2동의 주택지역인 이곳을 가장 불만한 골목으로 바꾸어 보자는 제안에 솔깃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제안에 동의한 우리는 여름 명절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답사하고, 주민들과 인터뷰를 해가면서 또는 역사적인 자료를 뒤적거리면서 이 동네의 실존 유래부터, 두맹이란 명칭까지 찾아냈다.”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탐라미술인협회 공공미술연구회는 골목을 누비며 얻은 결과물로 제주민예총이 주관한 공공미술공모사업에 응모했다. 1차 프로젝트는 도시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곳(319m)에서 이루어졌다.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벽화를 그려 넣었다. 2차 프로젝트가 진행된 2009년에는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더 많은 벽화를 그려넣었다. 2009년 12월에는 동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등 인근 3개 초등학교 학생 1500여 명이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한 타일벽화가 제작되었다. 이 구간(700m)에서는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40여 년 전에는 두맹이골목으로 불렸던 그곳은 제주의 숨은 비경 31개 가운데 하나인 ‘기억

의 정원’이 되었다.

◇돌 많은 두무니머들

두맹이골목은 옛 지명 구중동과 두문동에 걸쳐 있다. 1998년에 출간된 <제주시의 옛 지명>에 따르면, 구중동의 중(重)은 옛날 높은 사람이 다니던 길로 추정되지만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두문동은 구중동에 동쪽으로 돌이 많아서 ‘두무니머들’이라고 부르던 것이 와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래 이곳에는 팥감으로 사용되던 가시덤불과 무덤, 골충 등이 얹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골충은 임자가 없어 벌초를 하지 않거나 후손이 끊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무덤인 고총(古塚)을 가리킨다. 이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면서 ‘술’이라는 이름을 붙여 ‘두무니술’, ‘두무니세’로 불렀다가 두문동이 라고 부르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구중동과 두문로가 성 동쪽의 공동묘지였다. 그러니 여기에 마을이 이루어진 것은 제주성이 해체된 이후일 것이다. 제주성이 1910년대에 해체되었다면,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전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두문동까지 마을이 번성하게 된 것은 1970년대라고 한다. ‘기억의 정원’으로 조성된 두맹이골목은 두문1로부터 구중 1, 2로를 거쳐 구중갯길까지 약 1km 거리다. 이 골목을 걷다보면 1960년대 좁 지어진 집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마을이 번성할 때를 짐작하게 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다. 아스팔트포장이 된 박죽조차도 1960년의 풍경 가운데 하나로 흡수된 듯이 느껴진다. 그 덕분에 ‘추억’이라는 웃을 갈아입

고, ‘기억의 정원’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기억의 밀피유(mille feuille), 천 개의 기억

켜켜이 쌓인 얇은 파이 겹질 사이에 두 세 층의 크림을 넣은 디저트를 프랑스에서는 밀피유, 곧 ‘천 장의 나뭇잎’이라고 부른다. 켜켜이 쌓인 얇은 파이 겹질을 퍼프 페이스 트리(Puff Pastry)라고 한다. 수백 겹 페이스트리를 만들 때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다. 밀어서 편 밀가루 반죽 위에 버터나 라드(Lard)등의 유지를 펴 바른 다음 반죽을 접어서 밀대로 밀고, 다시 접는 과정을 반복한다. 접고 밀어서 펴는 과정을 반복해서 구워냈을 때 무수한 겹이 생겨나는데, 2천 겹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인간과 도시도 일상을 접고 밀어서 펴는 과정을 반복해서 천 개의 기억, 아니 수천수만의 겹으로 이루어진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접고 밀어서 펴는 일상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2008년을 전후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제주에 찾아들었다. 이들을 맞이하면서 제주는 다양한 두맹이골목들을 만들었다. 야심차게 시작하여 성대한 결과를 본 일도 많지만, 지리멸렬하게 되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일도 적지 않다. 두맹이골목을 찾는 관광객들과 그들이 남긴 블로그 게시물들이 많은 것을 보면, ‘기억의 정원’ 프로젝트는 꽤나 성공한 사례로 보인다. 벽면에 그려진 동네 구석에서 말뚝박기하는 아이들, 딱지치기하는 아이들, 축구공을 들고 전봇대 뒤에 숨어 있는 아이들은 흑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벽화들이 골목 곳곳에 그려져 있다(사진 위).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골목이다(아래).

백사친절을 뒤적거릴 때 받게 되는 위로를 준다.

◇여기, 지금의 기억을 만드는 창조

“너무 빠르다” 하고 고개 숙인 순간 저만치 앞서 가버린 현실이 원망스럽고 외로울 때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재생되는 수천수만 겹의 기억은 기분 좋은 달짝지근한 맛이 난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 달짝지근한 맛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는 데 있다. 예능, 문화콘텐츠, 도시공간에 이르기까지 ‘복고와 재생’이 황금률이 되었다. 물론 복고든

재생이든 그 모든 것이 ‘여기, 지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때, 거기’를 ‘여기, 지금’ 불러 세우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 지금’은 ‘그때, 거기’로 접고 밀어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 제주의 곳곳에 있는 두맹이골목들은 ‘보고 걷는 길’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 놀면서 추억을 쌓는 길’이어야 한다. 요즘 들어 회자되는 ‘창조’란 본래 이런 것이다.

김치원 주간교수

교수시론



홍희숙
의류학과 교수·취업전략본부장

“
취업지원관·글로벌 인턴십,
지역산업맞춤 전문인력양성,
기업 채용설명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해
많은 참여 통해 기회 잡았으면

”

기자수첩



김지영
기자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연간 1만4000명에 이르는데 이 중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의 원인으로선 입시경쟁과 성적지상주의가 상위권에 꼽힌다. 한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중에서 무려 39.3%가 자살충동의 원인을 성적과 진학문제라고 응답했다. 학업

독자기고

나를 변화시켜준 학군단 생활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 나는 게으르고 허영에 가득 찬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방황하던 대학생활을 보내던 중 어느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질감으로 학군단 모집설명회에 가게 됐다. 설명회에서 학군단 생활을 하고 있는 후보생들의 당당한 모습을 봤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를 설레게 했고 학군단 해서기의 나의 미래를 상상하게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정표처럼 길을 제시해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이 길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학군단에 들어갔다. 처음 시작한 학군단 생활은 쉽지 않았다. 나태함과 게으름에 익숙했기에 힘든 것은 당연했다. 분명 쉽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변화시키고 발전하기에 좋은 촉매제가 됐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그리고 벌써 여섯 달을 생활하니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생겼다. 건강해졌으며,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이 강해졌다. 나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느꼈다. 또한 학군단 생활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은 아니었다. 항상 다른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자랑할 때에 아무 말도 못하였다. 지금은 부모님께서 내가 단복을 입은 사진 속 모습을 자랑스럽게 내보이시

내일의 꿈을 향한 ‘성공취업’ 여러분의 도전을 취업전략본부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지원합니다

‘일취월장’ ‘성공취업’ 이것은 취업전략본부에서 자주 쓰는 말이다. 학생들의 일취월장 성장은 물론 일찍 취업하여 월급 받고 장가(시집)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다짐이 담겨있다. 그리고 무조건 취업 보다 희망하는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바람이 들어 있다. 이를 위해 취업전략본부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취업지원관 프로그램이다. 취업지원관들은 단과대학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취업지원을 위해 적성검사, 진로상담, 취업 상담을 한다. 자기소개서 및 면접클리닉, 모 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면접 실시, 기업과 직무에 대한 정보 제공, 개별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뿐만 아니라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둘째,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학점이 인정되는 재학생 프로그램과 졸업생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재학생 대상 6개월 프로그램은 미국(디즈니랜드), 호주, 중국(상해, 청두), 캐나다, 영국으로 파견된다(1학기 선발). 우리대학에서 어학교육(2주)을 거친 후 외국대학에서 어학연수(10주)를 마치고 외국기업(관공서) 한국기업 현지지사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방학 프로그램은 미국(뉴욕)과 영국에서 이뤄진다. 이외 만 34세 미만의 졸업생(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하는

호주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다.

셋째, 지역산업맞춤형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국제항공서비스트랙과 제주투자기업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국제항공트랙(1개월 교육)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들은 아시아나 및 진에어 항공사의 지상조업무를 담당하는 ㈜에이큐 회사(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에이코리아 회사(한진그룹 계열사)로 채용되거나 제주항공과 티웨이 지상조업 업무를 담당하는 ㈜ATS 회사로 채용된다. 투자기업 프로그램에서는 복합리조트 산업과 금융산업에 필요한 실무교육이 이뤄지며, 탐정신화역사공원 및 관련 산업으로 취업이 연계된다.

넷째, 채용설명회 프로그램이다. 공기업,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채용설명회가 진행된다. 올해는 제주도개발공사(JPDC), 공무원연금공단, KT, LG생명과학, 삼성화재, 금융감독원, BGF 리테일, 신화역사공원, 스타벅스 등의 채용설명회가 있었다. 제주도개발공사(JPDC) 채용설명회에는 상/하반기 각각 약 200명이 참가했다. 이외에도 공사/공기업 시험에 필요한 직무적성검사 특강, 청년취업아카데미, 여대생경력개발 프로그램, 잡카페 프로그램,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들이 운영되고 있다.

취업전략본부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캠퍼스 곳곳에 플랜카

드와 포스터를 붙이고, 리플릿을 나눠 주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학과로 공문을 시행하고, 총학생회와 연계해 페이스북에 올리고, 학생 개개인에게도 정보를 보낸다. 올해 초에는 프로그램 소개를 위해 7개 단과대학을 순회방문했다. 취업지원관, 학과 교수님, 조교 선생님들의 협조체제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지원관의 학과 및 강사이나 학과에서의 프로그램 소개 시간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참여는 아직도 제한적이다.

취업하는 주체는 학생 본인 자신이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자발적 적극성이 중요하다.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4학년은 물론 저학년 역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과 미래설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학과 게시판에 붙어있는 프로그램 정보들을 매일 매일 읽자. 대학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제주대 소식과 채용안내 프로그램 정보들을 놓치지 말자.

온라인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잡카페를 들락거리며 취업전략본부와 친해지자. 작은 수고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꿈 사이에 오늘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금이 오늘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학생들이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학과의 적극적 홍보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하다

에 대한 큰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뒤덮인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의 새로운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가 타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기사를 자주 봤다. 결과만 본다면 우리나라 학습도는 훌륭하고, 자랑할 만하다. 그렇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주입식 사교육과 경쟁 입시교육, 입시제도와 정책의 비일관성이 문제다.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은 우리나라를 학벌주의 사회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대학은 서열화 됐고, 성적지상주의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엄청난 학업스트레스와 존재감 상실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더 나은 교육,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은 주입식의 공부가 아니다.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닌 상호적인 참여의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독일도 한때는 주입식 교육제도의 학문적 전통을 가진 나라였다. 그러나 교육의 결과로 전쟁과 비상식적 우월주의를 가져왔고, 참담한 교육의 실패를 겪었다. 이후 독일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다수의 깊은 사고와 토론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추구한다. 상위인 인재가 이루는 큰 성과보다 다함께 살아가는 것에 몰입하도록 길러내는 것이 현재의 독일 교육이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로 도둑은 끝이 난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초등학교이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교과서에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지만 결국에는 시험지의 오지선다형 문제로 출제돼 점수로 매겨지게 된다. 경쟁이 무조건 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아이들은 다른 친구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 친구를 견제하고 짓밟는 과열 경쟁에 시달린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생들을 위하고 있는 학습유형을 가져와 아이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 설

방법론과 학습공동체 육성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을 요구받고 있어 대응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학 교육은 직종과 더불어 기술의 변화로 정형화된 학습보다 현장 중심의 학습, 강의식 학습보다 학습 공동체, 지식보다는 방법 강조 등을 강조해야 한다. 여기에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간 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각각의 대학은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주대는 대학혁신, 특성화 사업 등의 유치에서 좋은 성과를 내었기에 이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기본 공통으로 방법론을 강조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현장에서 배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현장 기반 지역 학습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발전을 진일보 시킬 것이기에 중요하다. 대학 교육에서 방법론의 강조는 단순한 통계분석이나 실험을 넘어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적, 분석적 사고를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서 특정 분야의 교육과 훈련보다 보편적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경험은 제주의 상황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 제주 지역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학습공동체 육성은 방법론의 습득과 더불어 소통하는 능력 또한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더불어

비판적 안목을 키우는 경우로는 문제 제기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뉴스가 된 하수처리 부재, 외국인 범죄, 그리고 지방정부와 국가 모두 주택건설, 관광지 개발, 제주국가정원 조성 등 개발지향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가 제주지역 전문가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이끌어 가는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문제해결 학습이자 현장 중심의 지역 학습의 장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방법론적 접근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익한 융합적 지식일 것이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거친 학생은 사회의 수요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인재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미래 사회의 요구와 학생 수 감소 상황에 대한 대응은 기본기를 충실히 갖추는 것으로, 교육은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주대는 이제 성공적인 교육부 사업을 유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어진 과제 수행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공통의 기본 방향을 찾아 제주대학교의 기본적 특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서 요구되는 지식보다 방법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각각의 성과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주 함께 모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협중’ 분위기 학산과 대학의 대처

최근 제주시 한 성당에서 새벽기도를 하던 60대 여성이 중국인에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관광객 천만시대를 맞아 ‘관광객 총량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 사료된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겁다. 예로부터 제주의 자랑이었던 ‘삼무’가 이제는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 이상 제주는 이전처럼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곳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동시에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제주도민의 적개심이 팽배해져 자칫 여러 가지 이유로 제주에 오는 선량한 외국인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동시에 뒤따른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미국대폭발테러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무한 정적 작전’으로 작전명을 명명하여 보복전쟁을 시작했다. 테러사건이 이슬람 테러조직에 의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포들이 숨츠여 지냈으며 또한 이들은 미국 일부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과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전국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재적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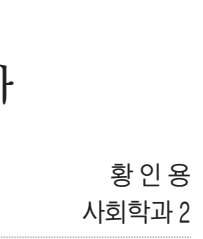
생 수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만 명을 넘어섰다. 제주대학교도 예외는 아니며, 2016년 4월 기준으로 외국인 학생 4천8백여 명이 586명으로 중국인 학생의 비율이 약 8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몽골 4.1%, 일본 3.4% 순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에 발맞춰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대학 내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와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앞으로 제주대학교가 ‘거점국립대’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국제화된 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의 유치와 더불어 그들을 위한 섬세한 질적 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 제주도,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업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중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입국절차 제도 개선을 기대해 본다.

‘견갑골’ 운동 통해 어깨 키우자



황은석
영어영문학과 3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도 끝이 났다. 여름의 짧은 옷차림은 내 몸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 신체 곳곳이 적정된다. 복부도 자신이 없지만 특히 어깨가 신경쓰인다. 사람들은 팔레판 복근에서 딱 벌어진 어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어좁이’, ‘어깨깁개’와 같은 말들이 만들어졌다. 학교 체육관을 가도 다들 양손 가득히 쇠를 들고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것을 보고 나도 어깨를 키우기 위한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어깨를 넓힐 수 있을까? 어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운동이 있지만 나는 ‘견갑골’ 운동을 시작했다. ‘견갑골’은 실질적으로 어깨 부위가 아니다. 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에 따르면 견갑골은 등의 위쪽에 있는 한 쌍의 뼈로, 몸통의 뒤쪽과 팔을 연결하는 역삼각형 모양의 넓적한 뼈이다. 또한 견갑골은 빗장뼈와 함께 몸통과 팔을 연결하고 힘과 움직임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깨의 근육은 삼각근이라 불리는 근육이 따로 있지만, 실질적인 어깨의 넓이 그리고 등판의 넓이를 좌우하는 것은 ‘견갑골’ 주변 근육의 발달 정도다. 그럼 ‘견갑골’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적으로는 턱걸이로 대표되는 등 운동이 있다. 등 운동은 직



황인용
사회학과 2

접적으로 승모근, 광배근 등의 근육들이 운동이 된다. 그리고 운동 과정에서 견갑골 주변의 여러 근육들이 발달되면서 어깨를 넓혀준다. 또한 등 근육이 발달하면 굽은 어깨를 뒤로 잡아당겨주기 때문에 굽은 자세로의 체형 변화도 동반된다. 이 운동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진 아주 좋은 운동이다. 한편 보조적으로 견갑골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켈소 슈러그(Kelso’s Shrugs)’란 운동이 있다. 이 운동은 상체의 자세를 어짐이나 피로누적, 부상에 대한 방지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견갑골이 기능하는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실제 어깨 넓이의 확장에도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켈소 슈러그를 통해 발달되는 근육들은 등 운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체 운동의 실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처럼 켈소 슈러그 역시 일석삼조의 효과를 지녔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 자신의 몸매를 가꾸어 나갈 수 있다. 태어난 골격이 작다고 좌절하지 말고 좋은 운동을 옳은 방법으로 실행해서 우리의 몸을 예쁘고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신체는 모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실시하자.

이슈 Check

‘농민 백남기’ 생명 앓아간 공권력

정보화 사회인 요즘 SNS와 포털사이트에서는 무수히 많은 댓글을 통해 수 많은 사건이 논쟁이 되고 이슈가 된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공권력,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단어다. 2016년 9월 25일, SNS상에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흘렀다. 네티즌들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이라며 권력을 남용한 정부에 대한 사회를 요청했다. 사건은 이렇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씨가 쓰러졌다. 당시 경찰은 불법집회라며 폴리스라인을 정하고 넘어오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시위대들은 그 선을 넘었다. 결국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안면을 가격당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317일 동안 의식불명상태에 빠졌고, 9월 25일 사망했다. 야당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경찰 과잉진압에 의한 사망으로 규정하고 정치 정쟁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경찰의 직수 살수에 의한 것이며 당시 경찰이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SNS상에서는 두가지 논리로 인해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경찰은 물대포 살수 시 시위 참가자 가슴 이하 부분을 향해 꼭 사해야했다. 그들은 백남기 농민을 향해 적사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며 공권력의 남용이다”고 질타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시위이며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진행했다. 다른 나라였으면 현장사살이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국가와 국민 둘 중 어느 것이 우선인다고 생각하는가. 기자는 국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있다. 당시 민중총궐기에 나갔던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포기한 채 현장에서 갔다. 하지만 국가는 무자비한 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공권력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건건 기자

제주환상종주 자전거길 따라 제주도 한바퀴

고된 종주 뒤에 찾아오는 제주의 아름다움

최근 자전거를 통해 국토를 종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반응하듯 전국 각 지역에는 자전거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한강종주자전거길, 동해안에는 동해안종주자전거길 등 총 13개의 자전거길 코스가 존재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여행’ 책자를 발간해 자전거길을 소개하고 있다. 각 코스 중간마다 설치돼 있는 인증센터를 찾아가 이 책자에다가 도장을 받으면 종주 완료를 인증받을 수 있다. 제주도도 ‘제주환상종주’라는 명칭의 자전거길 코스가 있다. 기자는 추석 연휴를 이용해 자전거로 제주도 일주를 체험했다.

<편집자 주>



태풍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었을까. 바람의 세기는 평소와 달랐다. 하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추석연휴기간 동안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에는 사람이 붐볐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 제주를 방문한 사람의 수는 약 24만 명이라고 밝혔다. 제주는 어느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다.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제주를 여행하는 방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렌트카 사용이 보편화됐지만 도보, 자전거를 통한 여행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자전거로 제주도일주를 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뒤를 쫓아 페달을 밟아봤다.

◇환상자전거길을 통한 제주도 종주 준비
공항에서 약 800m정도 떨어진 자전거 대리점인 ‘바이크 트릴’ 주변으로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여러 장비와 종주수첩, 자전거를 대어해 일주에 대한 준비를 마친다.
“열심히 달리시면 3일, 천천히 달리셔도 4일이면 충분히 종주가 가능합니다” 대리점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종주를 향한 첫 시작을 끊었다.
제주도 자전거 종주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길을 개척해 종주를 하는 방식이 있고, 정해진 코스를 따라 가는 환상자전거길이 있다. 기자는 환상자전거길을 선택했다. 이 길은 2015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가 개통한 것으로서 총 234km로 구성됐다. 도로 위에 파란색 줄과 표지판으로 구간의 표시가 돼 있고 제주도를 시계반대방향으로 주행을 하는 코스다.
교통량이 적은 해안도로를 활용해 제주도 한 바퀴를 모두 일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나가는 곳마다 인증을 남길 수 있는데 다락섬터, 해거름마을공원, 송악산, 법환바당, 쇠소깍, 표선해변, 성산일출봉, 김녕성세기해변, 함덕서우봉해변, 용두암 부스 등 총 10개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용두암 인증센터에서 종주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해안으로 이동하는 제주환상종주 첫 코스
출발 후 가장 먼저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곳은 애월의 해안도로에 있는 다락섬터이다. 목적지까지는 약 21km정도인데 일주도로와 해안도로를 반복해 가는 코스다. 타면

서 느낄 수 있는 바다의 냄새와 시원한 바람은 자전거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자전거일주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 도로 위에서 만난 자전거객들은 서로 동질감을 느꼈는지 인사를 서슴없이 나눴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등 기본적인 인사부터 시작해 다양한 대화를 주고 받았다.
서울에서 단체로 온 한 일행은 “긴 연휴를 맞아 명절을 보내지 않고 친구들과 우정여행을 왔다”며 “바다냄새를 맡으며 해안도로를 달리니 기분이 상쾌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에는 처음 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하는 이번여행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은 직장생활에서 잠시 탈피해 자전거를 타며 여유를 즐기기도 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타는 경우도 있었고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외에도 달리면서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는 학생들, 낚시를 하는 친구들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고통
그렇게 1~2시간쯤 타니 어느덧 자전거는



기자가 직접 제주환상종주 자전거길을 체험하면서 받은 도장이다.



제주환상종주 자전거길 제1코스는 제주국제공항에서 다락섬터까지 총 21km이다. 코스 중간마다 남은 거리가 적혀 있다.



자전거 길이 자동차 주차장으로 변질돼 있는 모습. 일반 차도로 우회해야 돼서 위험하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스탬프는 공중전화부스처럼 생긴 곳에서 찍을 수 있었다. 스탬프 외에도 펌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구비돼 있다.
자전거에 몸을 맡긴지 4~5시간 정도가 지나자 몸의 곳곳에서 피로감이 느껴졌다. 작은 안장과 핸들이 몸 전체를 의지하다보니 손바닥과 엉덩이가 아파왔다. 평소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페달을 밟은 결과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전거 안장에 몸을 맡기기가 두려워졌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적어도 자전거 위에서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와는 만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며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긴 했지만 땀방울을 닦아주는 고마운 비였을 뿐,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3일을 달렸다. 하루 평균 7시간 정도의 자전거를 탄 기자는 첫째날 송악산, 둘째날 성산일출봉까지 쉽게 달렸다.

◇육지와 바다 풍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제주에서 송악산으로 향하는 길은 대부분 평지여서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다닐 수 있었다. 일주도로와 해안도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에 육지와 바다 냄새를 동시에 느껴 볼 수 있다. 서귀포에서 표선까지 가는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자전거를 타면서 회비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표선에서 제주시까지 오는 길은 대부분이 해안도로인데 바다를 오랜시간 동안 바라보며 달릴 수 있다.
◇여전히 위험한 환상자전거길
명확하지 않았던 기존 자전거길의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환상자전거길이지만 여전히 자전거객에게는 위험이 따르고 있다. 파란색 줄로 표시된 도로 위에는 몇몇 차량들이 불법주차하고 있었다. 이 차량들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도로 다녀야만 했다. 자전거객들은 “환상자

전거길이 유명하다고 해서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위험하다”며 “또한 해안도로 위에는 어른에서 말리고 있는 소리, 다시마 등 때문에 길을 피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를 막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느껴졌다. 또한 표지판도 들쭉날쭉하게 배치돼 있어 처음 보는 길에서는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됐다.
제주도 자전거 종주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누군가는 “그 힘든 일을 왜, 어떻게 하나”며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경험해본자들은 하나 같이 외치곤 한다. “자전거 종주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이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살펴보기 위해 집에 있는 자전거를 끌고 종주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해건 기자

"어둠 속의 등불."
"시대의 길잡이."
"세상을 보는 눈."

'언론' 言論

진실의 펜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손 끝에서
일만아라의 목소리가
시작됩니다.

자격요건
1학년 또는 2학년 학부생

지원방법
제주대미디어(news.jejunu.ac.kr) 커뮤니티 > 알림에서
입사지원서를 내려 받아 출력 및 작성 후 신문사에 제출

제출기한
10월 24일(월) 오후 6시까지

활동혜택
장학금과 취재수수료,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
취재사진 교육 및 해외원정 취재 기회제공

지원문의
010 8916 0309
제주대신문사 편집국장

영화평 '러덜리스'

강한 여운이 남는 부성애를 다룬 음악영화

한참 음악 영화가 유행했을 때 <비긴 어게인> <윌렛래쉬>를 이을 진짜 음악 영화라는 컨셉으로 홍보 됐던 영화가 있다. 같은 음악 영화지만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영화는 제30회 선댄스 영화제 폐막작으로도 상영된 바 있다.
러덜리스(rudderless)는 키를 잃은 배처럼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말한다. 영화의 주인공인 샘(빌리 크루팜)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영화는 잘 나가는 중년의 광고기획자 샘이 어느날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아들 조쉬를 잃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요트에서 부랑자 같은 생활을 한다. 그러던 중 전 아내가 가져다준 집에서 아들이 만들고 부른 곡들의 CD와 가사 노트를 발견하게 된다.
아마추어 뮤지션이 노래하는 술집 트릴에서 아들의 노래를 부르고, 이를 들은 청년 쿠엔틴(안톤 엘친)은 샘에게 함께 음악을 하자고 제안한다. 우여곡절 끝에 밴드는 '러덜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들은 높은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 하지만 아들의 전 여자 친구가 나타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밝혀져 밴드는 해산된다.
러덜리스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음악을 통해 아픔을 이겨내는 여느 타 영화의 클리셰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이 영화만의 차이점은 영화 중 후반부에 등장한다.
대학에서 다른 아이들을 6명이나 죽이고 자살한 학교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인 아들 조쉬와 그런 아들이 작사·작곡한 노래라는 것을 숨기고 대중 앞에서 부른 아버지. 영화는 복잡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람들은 가해자의 입장을 크게 고려해주



러덜리스 영화 중 한 장면. 주인공이 관객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부르며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지 않는다. 샘의 아들은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렇지만 아버지 샘의 관점에서 영화를 느낀다면 형용할 수 없는 먹먹함을 가져다 준다.
주인공의 행동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으로든 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영화는 음악이라는 주제와 부모의 역할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주제를 함께 제시한다. 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아들과 그 뒤에 따라오는 비난과 책임을 감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총기사건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샘은 학교총기난사 사건의 피해자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인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조쉬는 그의 아들이다.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수밖에 없다. 가해자인 아들이 만든 곡임을 알고 밴드와 음악을

포기한 쿠엔틴에게 샘은 “quitters never win”라는 조언을 해준다. 도망쳐서는 이길 수 없다는 이 말은 아들이 살인자가 된 현실 속에서 방랑하고 있는 자신에게 전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영화의 마지막,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한 적이 없던 샘은 처음 노래를 불렀던 술집에서 자신의 사연을 밝히며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숨을 죽인 채 듣는다.
아들이 완성하지 못한 노래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완성시킨 노래 'Sing Along'의 가사 중 “만약 어딘가에서 이 노래를 듣고 있다면 같이 불러 다오 내 아들이”에서는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떠난 아들에게 전하는 진심어린 메시지가 전해진다.

김지영 기자